

청년 부흥을 위한 청년리더의 자세



일시 | 2011년 3월 14일(월), 15일(화), 17일(목) 오후 7시
장소 | 원주제일교회(☎033-743-0713)
대상 | 청년 리더 및 예비리더,
훈련받기를 원하는 청년, 청년담당사역자
주최 | 교육국
주관 | 청년정책위원회 원주청년관
후원 | 동부연회, 원주동·서·남지방회

목 차

초대의 말씀		4
일 정 표		5
강사 소개		6
리더의 기본기 제자도 _ 현철호 목사		7
청년리더의 대화법 _ 장경철 교수		15
은혜와 감동이 있는 청년부 예배 기획 _ 조세영 목사		19
침묵기도와 깊은 묵상큐티 _ 하정완 목사		25
청년부 소그룹 인도의 실제 _ 김영석 목사		35
코트십(courtship) How? _ 이정현 대표		43

초대의 말씀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원주의로 인한 절대 진리의 부정과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와 신흥종교의 급격한 확산,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부의 비윤리적인 문제와 분쟁, 세습 등으로 교회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가치관과 기존 질서의 붕괴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교회에 대한 비판과 공격,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시대에 어떻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오듯이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변혁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의 본질이 회복될 때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의 존재가치와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증거 될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며 청년부흥을 열망하며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청년사역자들과 청년리더들을 ‘2011년 감리교청년리더십학교’에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청년부흥의 새로운 꿈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이화식

2011년 감리교청년리더십학교 일정표

	3월 14일(월)	3월 15일(화)	3월 17일(목)
18:50-19:10	등록, 찬양	찬양	찬양
강의 19:10-20:30	리더의 기본기 "제자도" 현철호 목사 (백운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청년부 예배 기획 조세영 목사 (금성교회)	청년부 소그룹 인도의 실제 김영석 목사 (종교교회)
20:30-20:40	break time	break time	break time
강의 20:40-22:00	청년리더의 대화법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침묵기도와 깊은 묵상큐티 하정완 목사 (꿈이있는교회)	코트십(courtship) How? 이정현 대표 (크리스천데이트 결혼준비학교)

강 사 소 개

현철호 목사

121년의 오랜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아현교회 청년부를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으로 변화시킨 열정의 비전 메이커, 현재 백운교회를 담임하여 많은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장경철 교수

낮선 조직신학을 청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기로 유명하다. 서울대 사회학과(B.A.), 장신대 신대원(M.Div), 미국 프린스턴 대학원(Ph.D)에서 공부하였다. 현 서울여대 교수, 기독교문화연구소장으로 재직이다. <축복을 유통하는 삶>, <믿는다는 것의 행복>의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조세영 목사

적박한 감리교 청년목회 현실에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공동체를 일구어낸 목회자, 현재 금성교회를 담임하고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의 중앙위원, 감리교 청년정책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하정완 목사

영화설교, 문화 사역자, 청소년&청년설교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디까지나 복음전도에 대한 갈망으로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도시 한가운데서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꿈을 꾸며 10여 년 전 꿈이있는교회를 개척하여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코스타, 영화예배 컨퍼런스 주강사이고, 학원복음화협의회 중앙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김영석 목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다. 색깔 있는 청년부보다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며 젊은이들의 영적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종교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다. 60명이 모이던 종교교회 청년부는 3년간 조용히 성장하여 현재 300여명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

청년들의 가장 실제적 문제인 이성교제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현, 크리스천 데이트결혼준비학교 대표,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부대표, 사랑의 가정 연구소(Hi Family) 이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성교제의 교과서 <크리스천 연애편지>의 저자이다.

리더의 기본기 제자도

현 철 호 목사(백운교회)

제자란 ()을 따르는 자이다.

스승의 비전과 가치에 ()하고, 그 스승의 비전을 () 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이란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 스승처럼 사는 것을 카피하는 것이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일 뿐 아니라 또한 ()이다.

따라서 우리의 제자도는 예수님의 주인되심. 즉 () (lordship)에 근거한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것이 곧 제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이다.

먼저는 ()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진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략으로 선택하신 일 - ()

두 번째는 ()를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를 이루는 것.

행2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진정한 ()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을 소 유한 교회를 이루시는 것.

마6:16절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략으로 선택하신 일 - 12명의 ()를 부르셔서 훈련, 공동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에 ()하며

그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기로 ()하고 실제로 () 것을 말한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다. 어렵다.

()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좁은 길로 우리를 () 계신다. 초청하고 계신다.

제자란 이 부르심에 () 큰 소리로 대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제자도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 절 제자로 써주세요. 조르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과연 어떤 부르심인가?

1) ()로의 부르심이다.

고전 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편하다. (창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부르셨는가?

바로 우리와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불러서 일 시키려고, 써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를 시키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로의 부르심이다.

막 3:13-15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 하시려고!!

물론 ()도 하고 ()을 내어 쫓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제자도이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고 싶지 않은가? 결혼 아내와의 교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와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이 일어나야 한다. (늘 급한 일-소중한 일로...)
 이러한 교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나의 ()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이시기 때문에 나의 관심도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향해 ()를 하게 되고,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내 물질을 사용해서 ()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교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예) 모세는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 선교여행 3주만 같이 있어도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원래 모세의 성격은 ()이었다.
 그런데 성격은 세상에서 가장 ()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깊은 ()를 나누었던 것이다.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할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40일 금식기도해서 갑자기 되었을까?
 절대 한 순간에 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 가운데 변화된 것이다.

이 기름부으심은 흘러간다.
 모세의 기름부으심은 ()에게,
 엘리야의 기름부으심은 ()에게,
 바울은 ()에게 흘러갔다.

예) 다윗 : 삼상 22:1,2. 아돌람굴에 모였던 400명.
 처음엔 환난 당한 자, 빛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삼하 23:8절을 보면 강한 용사들로 변화되었다.
 교제로의 부르심에 성공한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도이다.

2) 제자도란 ()으로의 부르심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다.

예) 백마고지 (한 달에 ()번 주인 바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고지는 바로 ()이다.

마음에 묵상된 것은 반드시 ()으로 나온다.

마12:34-35

마15:18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따라서 말이 중요하다.

말한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해서 죽겠네- 그대로 죽는다)

긍정적 말을 해야 한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잠23:7절 “ ()이 그 사람이다.”

우리는 **마음**에 ()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으로 나오며 ()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행동은 ()이 되며 결국 ()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며,

동시에 사단의 관심도 ()이다. (요13:2)

왜? 마음을 빼앗아가면 ()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이 다 내 것이 아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

어떻게? 하나님의 것, 사단의 것 구별하나? 세 가지 기준 (성경, 성품, 건덕:공동체 세움)

잠4:23절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보다 죄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후10:4-5절** 사단의 것들을 ().

빌4:8 하나님의 것들을 ().

예) 우리의 마음 속에 흰개와 검은개가 있을 때 어떤 개가 이길까? () 개!

어떤 개가 힘이 썰까? () 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마귀의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따라서 우리는 ()를 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을 밀려오는 죄보다 더 많이 지속적으로 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입니다.

마음을 준다든 것은 다 준다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며 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제자도이다.

3) 제자도란 ()으로의 부르심이다.

제자란 나의 꿈 나의 야망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의 (),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꿈, 나의 비전으로 삼고
목숨 걸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의 꿈 그의 비전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의 ()였다.

눅 4:43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심.

눅 8:1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기 위해서.

눅 9:2, 10:9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몇 일 동안 계셨는가? ()일.

그 때 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행 1:3 ~ ()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한 것이 하나님 나라. (행

28:23, 행28:31절)

결국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ex)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의 법이 적용된다.

하나님의 나라란, ()와 ()과 () 이 세 가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와

()과 ()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 되어지기 시작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음란이 끊어지고, 여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다.

♪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 이셨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꿈을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한다.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배운 것 가지고 안 된다. ()을 받아야 한다.

행1:4-5절. 예수님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기적 전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다. 오히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떨기나무처럼 () 사람들이지만 ()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리더의 기본기 제자도 _ 현철호 목사(백운교회)



사랑의 훈련

장 경 철 교수(서울여대)

1. 건강한 자기 사랑

- 1] 우리는 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까? 부모들은 왜 자식들에게 더 엄할까? 부모들은 왜 자기 자녀에게는 함부로 말하게 될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 2] 건강한 자기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의 토대가 된다.
- 3]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용서 받은 경험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허물을 용서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다.
- 4]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은사를 발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할 수 없다.

2. 언어의 힘과 아름다움

- 1] 열등감과 언어의 기능
언어는 인간 정신의 양식이다. 가장 나쁜 오버는 해석의 오버이다.
언어와의 관계가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
- 2] 언어는 모든 존재, 체험, 사상의 집이며 그릇이다.
음식과 그릇 사이의 관계는 체험과 언어 사이의 관계와 같다.
- 3] 인간관계의 적용
언어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복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칭찬의 언어가 소통되는 관계이다.
사랑을 언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백이 중요하다. 칭찬이 중요하다.

3. 칭찬의 위력

1] 칭찬의 정의: 칭찬이란 무엇인가?

칭찬이란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칭찬이란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칭찬이란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 주는 것이다.

2] 칭찬과 행복의 원리

칭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3] 칭찬과 변화의 원리

칭찬은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 잘못된 방식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잘못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그것을 고쳐주겠다는 방식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가운데, 더 잘 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4. 상대방이 잘못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1]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침묵해야 하는가?

나쁜 것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2] 실패하는 사람은 나쁜 것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 간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어 간다.

5. 사랑에 대해서 자주 하는 오해들

1] 우리는 대체로 사랑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훈련의 문제인가?

2]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3] 우리는 사랑의 전 과정을 연습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의 첫 단계인 최초의 낭만적인 순간에만 관심을 갖는다.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한 때의 낭만적 기분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이다.

사랑의 훈련 _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조 세 영 목사(금성교회)

1. 여는 이야기

* 우리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요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예배)이 무력(無力)해졌기 때문입니다.

Why?

1) 엄청난 흡인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경쟁자(Screen, Video/Sports/computer..)

2) 문화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에 따른 놀이문화의 변화

(협동적, 모이는 문화→ 개인적, 흩어지는 문화)

3) 20년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대도 없고 재미도 없다.

4) 예배현장의 문제점들- 시간적 제한, 공간적 제한,

2. 생각하는 이야기

*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올바른 **방법(how)**은 없습니다. 방법 이전에 **무엇(what)**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why)**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첫 물음이 없이는 **무엇이라는 내용과 어떻게 라는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왜라는 목적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확실하면 내용과 방법은 올바르게 이끌어집니다.

*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목적)

()

- 예배의 의미는 **Service(英)** 봉사?? :

Gottesdienst(獨) 하나님의 섬김 :

*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출24장, 신12장, 16장)

1)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만이 예배함

2) 적극적인 참여

- 3) 말씀 선포 중시
- 4) 주관적, 적극적 헌신
- 5) 하나님과의 관계형성
- 6) 기쁨과 즐거움의 장(場) / 축제

3. 좋은 예배를 위한 전략

1) 잘 준비된 예배입니까?

준비과정속의 하나님- “하나님?!, 그거 대충 하면 돼!”

배치속의 하나님 - “하나님?!,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난 신경 안 써!”

정리정돈속의 하나님- “하나님?!, 쓰레기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때...”

음향속의 하나님- “요새 하나님은 왜 그러다냐.. 모기 같애!?”

* 준비된 가운데 청년들을 맞이합니까?

* 예배를 기획하고 디자인(Design)해야합니다

설교준비 끝이면 예배준비 O.K? Oh NO! 방송 출연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 이름과 제목에 걸 맞는 내용, 방법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찬양예배?? 수요 기도회?? 문학의 밤?? 애국 수련회!! 경배와 찬양!!)

*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고 세심하게 예배를 기획하고 만들어야합니다.

① 1년 동안 진행할 예배의 틀을 짜라 (월별 주제, 주별 주제)

② 주제에 맞춰 준비하라 (설교/찬양/드라마/영화/Deco 등)

- 필요에 따라 예배 리허설을 실시한다.

③ 절기와 청년문화의 특별한 때를 놓치지 마라 (성년감사, 데이트, 결혼)

2) 신(神)나는 예배입니까?

Interval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좀 짜증나는 분이야”

Ment속의 하나님- “하나님도 조심해야할 분이야!”

임원들의 물리적 심적 위치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노시니 나도 논다!!!?”

건강한 신체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 천하무적이지만 난 피곤해!!”

* 예배의 진행과 흐름에 민감해야합니다

(No Interval의 원리, 긍정멘트의 원리, 생체리듬, 신체건강상의 원리)

* 기쁨과 환희, 축제적 요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건 또 뭐야? 분위기 캠퍼네!!! (Decoration에 감춰진 위력들)

상징물(실물전시, 깃발, 그림)이 주는 영향도 큼니다.

- *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입구부터 왜 난리야? (예배실 입구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리더,임원들의 열성 찬양?? (놀러갈텐 일등, 예배편 지각!)

- * 찬양 가운데 경배적 요소와 찬양적 요소를 구분하여 인도해야...

“기독교적인 음악은 없다. 기독교적인 가사가 있을 뿐이다”(Rick Warren목사)

- * **다양한 기도의 방법의 활용**

(릴레이 기도, 한 주제에 대한 연도, 반복 응답기도, 공동기도, 대화 기도,

침묵기도, 문단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 * 구도자들(seeker)이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눈높이 예배가 필요

① 예배 환경 조성, 시설투자에는 피를 흘려라 (LCD 프로젝터, 방송,악기)

② 나눔과 교제도 중요하다 (새신자/입대,전역,휴가자/생일자/유학자/결혼 등)

③ 예배 중 주제가, 표어로 사명과 목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라

3)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 * 정보를 **충격과 인상**에 의해 받아들이는, 보는 세대(Visual Generation)로..

문자, 음성언어로서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 * **느낌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한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 보는 것보다 행하는 것

말씀이 들려지도록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야합니다.

- * **다양한 형태의 예배** : 드라마예배/ 시와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 그림예배/

현장예배/ 절기예배/ 영화 예배...

- * **말씀의 선포를 다양하게 표현** : 음악, 미술, 이야기, 신문이나 방송등의 스크랩, 영상, 방송극,

무용, 인형극, 그림자극, 무언극, 예배극, 연극, 탈춤, 민요찬송, 즉흥극, 심리극, 포즈취하기,

역할극, 예전적 체험극....

- * 말씀 선포와 적용은 **구체적**이어야합니다(**회개**합니다. **필요??**)

실물 설교, 체험설교(성막, 주의 영광...) 등 **다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 * 되도록 **예배와 소그룹 양육을 통합**하십시오. (단순성의 원리)

- *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이 **성경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함목적성의 원리)

4) 기대가 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속의 하나님- “좋은 선생님 때문에 기죽은 하나님!??”

- * **변화감이 느껴지는 창의적인** 예배가 되어야합니다.

(의외성, 희소성의 원리)

- * 교회력, 교회학교 학사일정, 국가 기념일과 국경일, 인간성회복과 사회문제(환경, 장애인, 북한...)등을 이용하여

- * 우리는 광고도 다르다!!!

5) 발전과 성숙이 있는 예배입니까?

- * 예배 **환경과 분위기를** 살려라 (투자가 필요)
카타콤 속에서 죽어가는(?) 청년들..
- * 예배를 **점검하고 발전** 시켜라 (연계성의 원리)
예배를 평가하십시오..(Feedback)

4. 정리하는 이야기

영화 보기 - “시스터 액트1(Sister Act)”

관람 자적 예배에서 함께 하는 예배로

1) 예배의 원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3-24)

2) 모범(모델)이 될 것(Mentor) (고후2:14-16)

- 리더는 복음, 그 자체이다.

3)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갈 6:9-10)

- 생명이 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4)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

- 영적 아버지의 마음, 은혜를 알아야...

5) 예배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 사람이 흘릴 수 있는 3가지 액체(눈물, 땀, 피흘림)로 생명이 자라난다.(눅8:6)
-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청년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_ 조세영 목사(금성교회)

침묵기도와 깊은 묵상큐티

하 정 완 목사(꿈이있는교회)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 “영적훈련과 성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다. 즉각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가르침이 하나의 주된 영적 문제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의 지성인이나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지성의 상실

피상적이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인의 모습이 세상에 가벼워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벼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것, 사라질 것, 곧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기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을 해리 블레마이어스는 “기독교 지성의 상실” (Harry Blamires, The Christian Mind, Servant, 3)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지성의 상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고, 결국 그리스천과 교회의 세상화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생각과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였고, 공공연히 “부자되세요”를 예배시간에 하여도 전혀 괜찮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절대적 축복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가난함, 겸손함, 섬김, 사랑, 희생, 절제, 단순함등의 단어들은 언제부터인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용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천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만큼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생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자기 편의적인 해석으로 호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피상성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읽기도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말씀읽기와 듣기입니다. 결국 묵상없는 말씀읽기와 듣기에 머무를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 깊이있는 묵상없이 읽기와 듣기를 한다면 언제부터인가 말씀에서 부적같은 효과거나 하루 재수보기 정도의 말씀으로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3-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 존 스토틀가 얘기하는 “생각의 싸움”을 말합니다. 곧 기독교 지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느때부터인가 기독교지성의 깊이가 얕아져서 쉽게 세상지성이 넘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빈치코드, 도올 김용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단적 논증들 앞에서 기독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기독교 지성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TV에서 떠돌어대는 가벼운 세상 지식 앞에 교회나 그리스천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분별력은 지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세운 박사가 하는 얘기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말죽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이야기에 심취해있던 어떤 어머니가 자기 동생과 함께 믿음을 시험했답니다. 하 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지성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같은 무분별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TV 등 세상의 얘기 앞에 솔깃하는 것은 지성적 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Don't become so well-adjusted to your culture that you fit into it without even thinking. Instead, fix your attention on God.”(Message 12:2) 너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너희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함으로 그 문화에 딱 맞게 어울리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너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라.

이미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성이 없는 기독교,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천박해지고 가벼워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깊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에 기초한 묵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의 깊은 지식에 이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묵상자료들로 도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의 위치를 살피고 그 위치에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교과서적인 지식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이론이 능통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낚시를 말할지라도 낚시질을 직접 해본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건조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큐티는 단순히 건조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가 성경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과 성경공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건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했을 때 바울을 쓰기도 하고 베드로를 쓰기도했는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틀리지않고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이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 지식이 나의 삶과 전혀 연관되어 살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성경적 단순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되지 않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공부는 그만해도 될 지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 100배는 더 성경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보다 100배는 더 비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지식보다 성경이 말하는대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듣기부터 시작하라

그렇다면 왜 그토록 열심히 성경공부를 했고 수많은 날동안 큐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건조한 지식의 습득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지식의 엘리트는 되었을지는 몰라도 참된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전제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듣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듣기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낮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명령을 쉼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 6:4)

“들으라”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쉼마”의 명령형으로 “쉼마”라고 음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쉼마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공부, 성경연구, 심지어 큐티조차도 능동적인 의미에서 목상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니다. 듣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없이 많은 지식들이 쌓여 똑똑해졌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듣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것, 그것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심각한 청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옛사람이 갖고 있는 필터로 읽고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거짓 자아가 하고 있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그릇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는 그릇이 문제이고 필터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기의 핵심은 다른 말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생각이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언제나 자기 연민에 기초한 생각들이 말씀을 필터링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숨은 동기를 지닌 거짓 자아가 말하는 음성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내적 침묵기도의 자리이고 멈추지 말아야 할 훈련입니다.

지식의 종류

자, 큐티는 읽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듣기는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깊이에 따라 듣기는 더욱 큰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자.”**

이같은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 모든 자녀들이 들었을지라도 지식에 따라 달리 들었을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아예 들을 체계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5살난 아이도 들었고 안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반찬 투정을 합니다. 11살 먹은 아이도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독법은 고등학생 아이 그리고 대학생 아들이 듣는 것까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듣는 방법은 그 사람의 지식 정도와 관계가 있으며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성숙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려는 지식의 종류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지식은 매우 다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얻은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그 정보는 왜곡될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지식은 과장, 왜곡, 축소가 난무한 것입니다. 전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만큼 그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과장과 왜곡은 줄어들지만 일회적인 지식이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 지식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경험하며 지냈던 제자들의 지식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지식입니다. 하지만 미숙한 지식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 이전의 지식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 없고 과장할 수 없는 분명한 지식이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는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미숙한 지식 상태에서 깨달음이 온 지식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나온 지식은 단순 경험이 아니라 깨달은 지식입니다. 물론 이 주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7) 분명히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육체의 영향을 받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지식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흔들렸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지식의 더 깊은 차원입니다.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경험한 지식을 말합니다. 주님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정확하게 육체를 이해하셨고(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 매우 정확하게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들의 영적 상태, 깊은 속사람까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던지신 세 번째 질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Σίμων Ἰωάννου, φιλεῖς μ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ἐλυπήθη ὁ Πέτρος ... λέγει αὐτῷ,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기노스코” 동사를 썼지만 전체 문맥상(모든 것을 아시오매 εἶδῶ) “에피기노스코”의 의미로 썼습니다. 주님의 마음까지 이해한 지식을 주님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육과 혼이 제어되어 움직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지식의 깊은 차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 성령체험이 되게 된 것은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깊은 지식을 체험하였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깨달음의 완성에 이른 것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즉 영과 혼과 육이 상호적으로 통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시편62편)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정도로 끝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의 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성장은 결단 그리고 실천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단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지식이 언제나 우리를 정체시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말씀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한다고 해서, 혹은 한달 정도 한다고해서 우리의 영성이 갑자기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인격이라면 성숙과 이해가 되는 지식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없이, 그리고 매순간 깨달아진 경험없이 우리의 지식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침묵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로 하는 큐티의 실제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설교말씀을 듣는 것이나 해석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인격적이시며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침묵기도(Centering Prayer) 5분, 10분, 20분 등 자신의 수준에 맞게 먼저 내적 침묵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하지 않고 내면의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centering prayer)를 침묵함으로 드립니다. 이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욕심과 세계관에 지배되어 있는채 색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오랜 수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큐티를 위한 선행조건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조차 무엇을 얻으려는 숨은 동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숨은 동기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꿈틀대는 숨은 동기로 가득한 거짓자아를 벗겨내서 온전하고 진실한 영적 자아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숨은 동기에 지배받은 거짓자아의 만족을 구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자아를 벗겨내고 참 자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는 오랜 수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큐티를 위한 선행조건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일반적인 책처럼 읽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도 문제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묵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렉시오(Lexio) 읽기 말씀을 읽는 것은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 강하게 다가온 말씀을 적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였다면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묻는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함으로(anticipate) 매우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천천히(slow) 생각하면서(think) 소리내어 읽습니다.(read) 평상시에 읽던 속도보다 2-3배정도 느린 속도로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강하게 다가온 구절을 오늘의 말씀 쪽지에 적습니다. 이때 구절은 한 번에 생각이 날 정도로 짧은 구절로 좁혀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타치오(Meditation) 묵상 오늘 받은 말씀을 수행쪽지에 쓴 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함으로 묵상합니다.

우선은 오늘 받은 말씀을 오늘의 말씀 쪽지에 쓴 후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함으로 묵상합니다. 이것이 메디타치오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묵상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신 “구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더 깊은 연구는 듣기를 더 폭넓고 깊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해석과 묵상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6장 14-29절을 본문으로 읽다가(렉시오)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만났다고 합시다.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묵상자는 이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하면 다 주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잘못된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헤롯왕이 자신의 비난받는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묵상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편의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에서도 놓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과 전체 연구를 통한 묵상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라치오(Oratio) 기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기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회개, 감사, 찬양, 중보 혹은 공훈의 기도등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로 어디서든지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이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일방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닌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회개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혹은 강력하게 중보기도와 공훈이 여기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미리 계획된 기도가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 그때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시는 제목이기에 기도는 깊이있는 기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지 묵상을 하다가 어디서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컨템플라치오(Contemplatio) 관상기도/ 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안식을 줄 때가 옵니다. 그때 그 말씀의 평안함에 거하는 것이 쉽 곧 컨템플라치오입니다. 혹은 메디타치오 즉 묵상할 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좇아서 기도(오라치오)할 때 하나님이 안식과 위로 혹은 평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편안히 쉬는 것이 컨템플라치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가 말하는 관상과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관상은 두가지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내가 관상하고자 하는 사건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과 함께 “그 장소를 가상해서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관상의 대상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상상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그 명상의 대상이 지니는 세세한 부분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 대상을 자기 속에 체화體化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EWTN이라는 미국 가톨릭 방송에서 멜깁슨과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멜깁슨은 어느날 폐쇄되는 교회의 도서관을 사서 어떤 책을 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책이 떨어져서 보니 에머리히 수녀님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멜깁슨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머리히 수녀 정확하게 말해서 앤 캐서린 에머리히(1774-1824)수녀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관상기도 중에 목격,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쓰여진 책이 “그리스도의 수난”입니다. 멜깁슨은 그 기록들을 마치 사실처럼 취급하였고 성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구성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관상은 그러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나오는 관상이 아니라 하나님안에서의 쉼, 그런 의미에서 관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락시오(Praxio) 실천 말씀을 따라 실천합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읽으면서 드리는 것이 기도(오라치오)이고, 그 기도에 깊이 참여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프락시오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서(렉시오) 깊이 묵상하면(메디타치오) 당연히 “사랑에 대한 기도”(오라치오)가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닫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쉼이 생깁니다.(컨템플라치오) 이어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프락시오인 것입니다.

***참고도서:**

하정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규장, 2010.

하정완, 21일 침묵기도 연습하기, 생명의말씀사, 2010.



침묵기도와 깊은 묵상큐티 _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

소그룹, 어떻게 인도할까요?

김 영 석 목사(종교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경험이 만든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길이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

로마서 15장 1-7절.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인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 기쁘게 사역하라.

본문은 연역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처음부터 대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 목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가 기분 좋은 만큼 자기가 힘들지 않은 만큼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생각하라.

고전 10장 23-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목원의 유익을 구하는 자, 목원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역설적 원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세상이 주는 환희가 철저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할 때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철저하게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고자 할 때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쁘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은혜의 역설이 이해되기를 바란다. 이 역설적 부르심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참된 것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본성을 거슬러 올라갈 때 찾아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이성간의 사랑을 보라. 육체적 쾌락은 자연스럽지만 그 쾌락은 참된 것이 아니다. 참된 사랑을 쾌락을 얻고자 하는 본성을 거슬러 올라 절제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내 자신의 존재목적은 <평신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에 둔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들이 행복한 것, 성도들이 기쁘게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리더들이 목장모임을 마치고 전체 모임을 가질 때 행복하게 웃으면 너무 좋다. 힘이 된다. 그러나 리더들이 힘들어 하는 얼굴을 보면 뼈가 저린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행복해야 목사도 행복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목원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가 아닌가? 행복의 소비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행복의 생산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축하한다. Whole new world 에 초대받은 것이다. 이 명령을 잘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2) 목원이 유익을 얻도록,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하라.

이것이 사역의 핵심이다.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목원을 유익하게 하는가, 목원을 세워주고 있는가>를 늘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 원칙에서 다른 모든 세부항목들은 나오는 것이다. 이것만 정확하면 다른 행동지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가>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순간도 자신을 위하여 사신 적이 없다. 아담이 오직 <자기를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목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종교교회 청년부의 사역자 원칙도 이와 같다. 새로운 사역자가 오실 때마다 목회팀이 함께 모여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평신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평신도가 설 수 있다면, 기쁘고 쉽게, 편안하고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의 피곤도 보상받을 것이다. 그렇게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소그룹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답은 <나도 모른다>이다. 왜냐하면 나도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더 정확한 대답은 가장 좋은 소그룹 인도법의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

굳이 정답을 말하라면 목원이 유익을 얻게 하고 세워질 수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방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유머와 위트있는 대화로 진행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이는 기도를 중심으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이는 찬양으로 모임을 이끌 수도 있다.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남의 옷 입으면 더 안 된다.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하는 방법이나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목장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목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자리여야 한다. 이것이 빠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커피타임은 목장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모임 또한 목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목자는 <개그맨>이 아니라 <MC>가 되어야 한다. 토크쇼를 진행하듯 목원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MC>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반드시 목자는 목원들의 이야기를 방향잡아 주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역할이 빠지면 목장은 단순한 교제 모임으로 전락하고 만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영적인 감화력을 키우는 것이 새롭게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놀라운 평신도>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소그룹은 결국 <교제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교제공동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공동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좋아서 모이게 된다. 그러나 이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교회는 신앙공동체다. <사람이 달라지는> 공동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앙공동체로 체질개선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에 실패한 것이다. 처음부터 교회에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제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을 방치해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3)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의지하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 <지금의 재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히2:2)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목자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능력이 있을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와 위로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 내가 만든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의지하라.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단지 만들 수 있다. 서로 노력하는 목장이 되도록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재미없으면 없다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꿈꾸는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천국으로 가

는 열차는 없다. 천국으로 가는 마라톤이 있을 뿐이다.

목원들은 <똑똑한> 리더보다 <헌신하는> 리더를 존경한다. 목자는 목원들의 사랑만 받아서는 안된다. 목원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목원들은 더 많은 성경지식을 알고 있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 혹은 자기보다 더 많이 나이먹은 리더를 존경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보다 더욱 헌신하는 리더를 존경한다.

(4)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내와 위로로 무엇을 이루도록 하시는가?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인내하고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야 한다. 술 마시는 친구가 있는가? 담배 피는 지체가 있는가? 기다려주라.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싶어서, 담배피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무조건 성장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나는 타락한 목사다. 가증한 샅군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관용이 있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배려하라. 그러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하는 것이다. 그 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교회 밖 사람들의 평가, 목원들의 평가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이 평가하신다.

목장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그래서 교회가 조롱거가 되고 힘을 잃는 것이다. 목장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목장은 건강해 진다. 결국 목장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서로 잘만 지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웃음이 많은 곳이면 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곳이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타락이다.

결론이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목원들을 받으라. 목원들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더욱 사랑하고 힘써 돌보고 세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목자들이 말하는 목장운영 노하우

A. 오지혜 목자 (28세)

1. 목장 모임 전

1) 기도로 준비(주일아침 기도) 금요일에, 큐티는 기본.

특히 주일아침 남동생과 함께 하는 기도의 경우, 주님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을 경험한다.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기도한다. 목장의 첫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 우리 목장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목장 되길 원하냐고 묻고, 응답받아 1년 동안 기도 이어나간다.

2) 금요일에 배를 못 갚을 시, 최대한 노력해본다

마을장, 간사님이나, 친구목자에게 문의. 혹은 우리교회나 다른 교회 해당말씀 설교를 찾아 들어본다. 주님이 분명 도와주셔야 하지만, 나도 준비가 되어야 자신 있게 '큐티'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다.

3)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 도움 구하고, 결과에 대해선 참참하기

기대치를 버리기(특히 사람에 대한 기대, 타인이든 자신이든)

2. 주중 심방

1) 심방 전에도 반드시 나의 연락과 관심이 도움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2) 다양하게 심방한다. (일상문자. 말씀문자. 주로 개인적으로 이름 꼭 불러가면서. 큐티 정리하는 문자. 기도제목 적은 문자. 전화. 등)

3) 장기결석 목원들은 적어도 목자와는 연락이 되도록 유지한다. 목장 모임에 무조건 끌고 나와야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은 버리고, 그냥 통화나 문자라도 끊이지 않도록 하면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

3. 목장 모임

1) 목장모임 초반엔 조용하고 어색한 게 당연하다.

큐티도 중요하지만, 목장 친구들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 마니또(제비뽑기 해서 정하여, 서로 위해 기도하고 문자 주고받기). 평일에 만나기. 일대일로 기도제목 나누기 등을 장려. 생일 꼭 챙기기. 목자가 많이 망가지는 것도 필요

2) 기대치를 버리기의 연장선상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두명을 보내주셔도 감사. 많이 보내주셔도 감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있고 평안할 수 있다.

3) 무조건 큐티,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지 않기

목원들의 염려스러운 마음(혹시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누는 이야기가 불품없으면 어떡

하지, 하는 걱정들) 먼저 읽어주고, 한마디라도 느낀 점을 나눌 수 있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목원들이 나누었을 때에 충분한 피드백 해주고와 자연스러운 연결이 중요하다.

일단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나오고 목장모임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지 않으며, 하나님이 뭔가 작업하고 계시는 상태라 할 수 있으니, 돌려서 말하지 말아라. 주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죄 사하심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을 강요할 수 없으니, 각자의 수준대로 충분히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라.

4) 나를 힘들게 하는 목원

위해서 기도하자. 더 품자. 기도하다보면, 정말 목원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통찰 주시고, 궁극한 마음 부어주신다.

5) 일을 하면서 목자로 섬기는 보람

조교하고, 대학원 논문 쓰고, 일도 하며, 목자를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이 목장 모임이 나를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장모임을 내가 목원들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목자를 하는 것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졌음. 중심은 하나님께!!

B. 이병진 목자 (24세)

Q) 조용한 목장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나요?

- A) 처음엔 당연히 조용하다! 친해지자_ 주중에 연락하기, 예배 같이 드리기,
1인 1규칙(예배 중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한 자기만의 규칙 정하기)
질문을 준비하자. 질문을 던져 자꾸 말할 기회를 준다, 연쇄질문을 한다.

Q) 어느 정도까지 강요가 필요한가?

- A) 사람마다 다르다. 신앙적 고민을 슬며시 던져주고 눈치를 살피 조절한다.
단, 아무 강요 없이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강요를 요구하여 신앙적 도약을 이끌어줘야 한다.

Q) 많은 인원의 목장 모임은 어떻게 인도하나요?

- A) 많아진다고 달라질 필요 없다. 많은 인원이 되었다는 것은 적은 인원일 때 좋은 목장 모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했던 것들을 충실히 하면 된다. 그러면 더 나눔이 풍성해 질 것이다.

Q) 목자를 피하는 목원은 어떻게 케어하나요?

- A) 왜 피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후 상황에 맞게 다가간다.
ex) 예배가 지루하고 목장모임이 지겨운 목원 -> 축제를 이용하거나 목장에서 노는 시간을 이용하여 초대하고 친해진다.

Q) 리더로 헌신하면서 겪는 고충

- A) 나보다 나은 목원을 바라볼 때, 나 때문에 목장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을 때, 민감한 질문들을 받을 때 미리 말씀으로 답을 준비해놓자 ->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로 해결하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소그룹, 어떻게 인도할까요? _ 김영석 목사(종교교회)

Courtship(코칭을 받는 데이트)

이 정 현 대표(크리스천데이트결혼준비학교)

1. 데이트의 관점

- 1.1 여성의 질문 -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2 남성의 질문 - 어떻게 해야 관계를 잘 풀어 갈수 있느냐?
- 1.3 공통점 : 그들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

2. 데이트의 단계

3. 매력을 느끼는 단계

3.1 매력적인 남녀의 방법

- 1) 남성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 2) 여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한다.

3.2 존재론적인 남녀의 특징

- 1) 여성은 관계 지향적 존재
 - 여성들은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를 원한다. 남성들은 자기가 형성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
 - 자신이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
 - 여성들이 능력이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정체감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 소속은 분위기라는 사회적 용어로 표현이 된다.
 - 여성들은 분위기가 되면 마음이 열린다.
 - 사람과의 연결만이 아니라 주변 물리적 환경과의 연결도 중요하다.
 - 좋은 인테리어와 백화점 등은 연결과 환경을 표현하는 구체적 환경이다.
 - 여성들이 남성들의 조건과 능력을 보는 이유는 안전감의 욕구 때문이다.
 - 안전에 대한 욕구는 여성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 때문이다.
 - 안전감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바탕이다.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2) 남성은 파워지향적 존재
 - 남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음을 보일 때 뿌듯하게 느낌
 - 어떤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면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한다.

- 능력 있는 남성만이 아름다운 여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 여성이 남성에게 조연이나 간섭, 충고를 하면 아주 싫어 한다
- 남성들에게 있어서 무능력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주제이다
-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은 능력에 대한 과시로 나타난다.

4. 상대를 반신반의하는 단계

1) 남자 :

2) 여자 :

5. 서로를 독점하고 친밀해 지는 단계

5.1 남과녀의 기대치 차이

5.2 남자 :

- 1) 경기는 끝났다고 오해하지 마라
- 2) 계획을 따라
- 3) 여성을 이해하라 : 여성들은 마치 파도와 같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유는 대부분 호르몬 영향이다. 일종의 '생리 전 증후군(PMS)'을 겪을 때 일어난다. 증상은 150여 가지나 된다. 분노, 불안, 벼랑 끝에 있는 초조한 심정, 무관심, 신체 부음, 어색함, 우울증, 절망감, 집중력저하, 감정분출, 감정이 예민해 짐, 피로, 무기력, 식탐, 두통, 불면증 등.

5.3 여성 :

- 1) 요구하는 법을 배워라
- 2) 남자를 이해하라 : 고무줄 같은 남성

6.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

6.1 청혼 : 여성은 결혼식 다음으로 청혼의 순간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한다. 청혼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예물이라고 할 수 있다.

6.2 약혼이 주는 선물



Courtship(코칭을 받는 데이트) _ 이정현 대표(크리스천데이트결혼준비학교)



Courtship(코칭을 받는 데이트) _ 이정현 대표(크리스천데이트결혼준비학교)

2011년 감리교청년리더십학교

발 행 일 : 2011년 3월 11일

발 행 인 : 신경하

역 은 이 : 이화식

편 집 : 정현범 임기선 02-399-4371

홈페이지 : <http://www.kmcedu.or.kr>

이 메 일 : kmcedu@chol.com

신국 16절 300부 152-223 다음주 금요일 받아보셔야 됩니다.

표지 디자인 내지 꾸며드려는 것

간결하게 청년에 맞는 것(교회)

02-399-4371 정현범 교육국 사무실(이용환 선생님)